

	보도자료 www.pps.go.kr	부 서	기획재정담당관
		과 장	강 희 훈
	총 3 매	사무관	송 지 혁
	배포일 2021. 5. 27.(목)		042-724-7044
배포 즉시 보도			

“조달청, 철근 등 자재 수급 안정에 적극 대응”

「시설자재 수급관리 TF」 운영... 수급현황 점검, 적정가격 반영 방침
23만톤 규모 비축 원자재 적극 활용... 제조기업 지원 및 물가안정 기여

- 조달청(청장 김정우)이 최근 철근 등 원자재 가격이 우리 경제에 위험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시설자재 수급관리 강화, 비축 원자재 방출 확대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 조달청은 27일부터 공공조달 분야 수급불안 문제를 완화·해소하기 위해 시설자재 수급관리 태스크포스(TF)를 본격 운영한다.
- 이현호 차장이 주재하는 TF는 주요 시설자재 납품현황, 주요 공공공사의 자재 수급동향, 비축 원자재 방출 등을 일일점검하고, 안정화 대책을 추진한다.
- 철근 등 가격이 급등한 시설자재는 계약단가를 인상한다.
 - 현재 조달청 계약단가는 국내 제강사들이 건설사에 제공하는 일반 약정가격의 95% 수준인데, 6월 초 시중시세를 반영하여 새롭게 책정되는 약정가격 수준으로 계약단가를 인상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현대제철 등 제강사와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관급철근을 유통하는 하치장 내 재고점검을 통해 철근이 원활히 유통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 시설자재 시장가격을 수시로 조사해 공공 공사비에 반영한다.

- 강판, 강관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공사 품목들은 상·하반기에 시행하던 정기 가격조사 외에도 수시로 시장 거래가격을 조사하여 적정 공사비를 책정하기로 했다.
- 이미 지난 5월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수시 가격조사를 통해 12개 품목 825개에 대한 수시 가격조사 결과 16.7%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다.
- 또한, 철근 등 특정자재 급등으로 물가변동 조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 제도'를 활용하도록 발주기관과 건설업계에 안내하기로 했다.

□ 공공공사 현장에 대한 시설자재 수급현황 점검과 관리도 강화한다.

- 조달청이 관리·감독하는 23개 공사현장은 시설자재 수급현황을 수시 파악하고, 수급지연이 발생하면 현장여건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대체 공급선을 확보하고, 필요 시 공사일정도 조정한다.
- 11개 지방청은 국책사업 등 중요·긴급 공사현장을 파악하고, 철근·레미콘 등 주요 관급자재들의 납품현황을 모니터링한다.
- 특히, 재해복구 및 안전시설물 긴급공사, 학교신축 공사, 국책사업 등은 공사일정에 차질에 없도록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 아울러, 납품지연으로 공사지연과 계약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기관·시공사·자재공급사들과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 조달청이 비축하고 있는 원자재 방출을 대폭 확대한다.

○ 조달청은 구리,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6종에 대해 매월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품목별 가격 상승률에 따라 1~3%를 할인 판매한다.

- 올해 비철금속의 총 방출량은 37,662톤으로 이는 전년도 동기 방출량인 26,134톤 대비 44.1% 증가한 규모이다.

○ 조달청이 비축하고 있는 구리 등 비철금속 6종의 비축량은 국내 수입수요의 약 62일분(23만톤)이다.

- 조달청은 원자재 시장상황에 따라 방출규모를 확대해 수급불안을 완화·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 조달청 비축 물자의 외상판매 시 이용 한도는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외상 이자율도 하향조정을 검토 중이다.

□ 한편, 조달청은 최근 철근 등의 가격 상승과 수급불안 원인을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투자 확대와 건설수요 증가로 분석했다.

○ 올해 공공기관이 조달청을 통해 구매한 철근과 레미콘은 전년 동기(5.21 기준) 대비 각각 24.5%, 14.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 조달청이 비축하고 있는 구리 등 비철금속은 런던금속 거래소 가격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10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년 동기(5.21) 대비 구리는 85.8%, 알루미늄은 61.6%, 주석은 105.3%, 아연·니켈·납도 33.6%~49.3% 상승

- 김정우 청장은 “시설자재 수급관리 TF 운영 등 원자재 관련 현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적극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시킬 방침”이라며
- “시설자재 계약단가 조정, 공공공사에 적정 공사비 반영, 조달청 비축물자 확대 방출 등을 통해 공공분야 수급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 5월 27(목) 11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21. 5. 26.(수)	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담당과장	이경훈 과장(044-203-4290)	담당자	김성준 사무관(044-203-4291)

철강 수급 안정을 위한 유통망 점검 및 공급 확대 추진 - 철강·원자재 수급 안정 관계부처 TF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은 5.27(목) 오전, 철강 및 원자재 수급 대응을 위한 대책 회의를 개최했음
 - 이날 철강 공급 물량 확대 방안, 철강 유통 현장 점검 계획, 건설업 및 중소기업 원자재 구매 지원 방안, 비축물자 지원 현황 및 대응 방안이 논의되었음
- 최근 주요국 경기 부양책,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소비·생산의 회복 등으로 원유, 철강, 구리 등 원자재 전반이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으며,
 - 특히 철강은 '21년 들어 국내 수요가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고, 주요국 내수 확대 및 중국 수출정책 변화로 수입이 위축되는 등 일련의 환경 변화에 의해 수급 불균형이 우려되고 있음
- 정부는 철강 및 원자재 수급을 위해 다음과 같이 대응해나가겠음
 - ① 국내 철강사들이 생산을 확대하여 2분기는 전 분기 대비 철근 22% (약 50만톤 증가), 후판 7.8%(약 16.6만톤 증가)가 추가로 생산될 전망이다
 - 철강사들은 하절기 보수 일정의 연기, 수출 물량 내수 전환 등 총력 생산 체제를 통해 수요 산업의 수급 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며,
 - 철강사들의 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은 관계부처 TF를 통해 범정부적으로 신속히 해소하겠음

② 정부합동점검반을 통해 사재기 등 수급 안정을 해치는 시장교란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위법행위 시 강력히 조치하여 가격 상승을 기대한 물량 잠김을 해소하겠음

○ 산업부, 국토부, 공정위 중심으로 정부합동점검반이 구성되어 이날 오후 대전·충남권을 시작으로 유통 현장 점검에 착수했으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 점검해나갈 계획임

③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를 수급 애로 신고 창구로 하여 기업들의 철강 및 원자재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애로를 접수하여 관계기관 및 국내 철강사들과 함께 해소해나가겠음

* 국내 기업의 소재부품 수급 지원을 위해 '19.7월 설립되어 운영 중

※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 수급 애로 신고 문의 : ☎1670-7072

④ 원자재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수요기업을 위해 정부 비축물자의 할인·외상 방출, 원자재 구매대금 용자 확대, 공동구매 활성화 등을 지원해나가며,

○ 자재 부족으로 공기 지연 등 어려움이 발생한 건설업계에 대해 공사 금액·기간 조정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임

□ 이날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강경성 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주요 산업들이 일제히 회복 국면에 들면서 병목 현상이 나타나 이전에 없었던 유형의 수급 불안정이 나타나고 있다”며

○ “정부도 현재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관계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원자재 수급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힘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김성준 사무관(☎ 044-203-429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